



항생제 사용시 양축가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

이 재 진 / 가축위생연구소 기획실장

오래간만에 가지같은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박사도 많고, 아는 사람이 많아 어설피게 아는 사람은 입을 닫고 시치미를 떼는 편이 상책 인줄로 알지만 모두가 진리라고 큰소리치며, 진리가 아닌듯 싶은 얘기가 판을 치니 아픈애기를 하여야겠습니다.

질병이 나면 우선 경험에 의하여 약을 쓰게 됩니다. 한국인은 확실히 우수한 민족입니다. 하나를 알면 둘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둘을 아는 박사님은 3 정도 아는 박사쯤은 아무것도 아니니라 여기니까요.

길을 막고 물어보십시오. 항생물질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누구나 한시간 정도는 열

마든지 강의할 수 있는 실력이 있듯이 우리는 참으로 우수한 한국인입니다. - 각설하고...

항 생물질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한 동안 자기 집에서 쓰지 않던 항생제를 쓰는 것입니다. 한번 썼던 약이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혹은 옆의 농장에서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같은 약제를 선택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상의하시던 전문가도 일단은 더 전문적인 면에서 돌아서서 검토하여 보십시오.

상업적인 판매요건 뒤에는 참으로 아픈결과가 올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값 비싸다면 좋은 약이라고 안심하셔서는 안됩니다. 복합항균제(항생제)라고 해서 안심하셔서는 더욱 안됩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상태나 여건이 모두 불합리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항 생물질은 원래 추천받으신후 3일정도 사용하여 조금이라도 효과가 없을때는 사용하지던 약제 투여를 중단하십시오. 병을 일으킨 병원균은 세균성이 아니고 바이러스성 질병의 원인인 감염증의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까요. 이렇

경우 2 차감염으로 인한 악화는 막을수는 있겠지요

항 생물질을 사용할때 이용하는 용기는 항상 청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용기가 불결하면 활력은 반감되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항생물질이라는 군사가 용기가 불결할때 항생물질은 필요없는 곳으로 힘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가 오게되기 때문입니다.

항 생물질은 주사할 때도 근육 깊숙히 하셔야 합니다. 알게 주사하거나 혈관에 주사하게 되어 흡수가 너무 빠르거나 늦게하게 되어 나쁜 영향을 주어서도 안되겠습니다. 주사기를 후진 하여 혈액이 나오는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같은 근육이라 하더라도 연한근육 부위를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 생물질의 상극관계를 아셔야 합니다. 즉 토끼에게 항생물질을 경구 투여하면 정상 세균층을 사멸시켜 맹장에 독성물질을 만듭니다. 토끼를 죽게 하여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토끼에게는 대체로 주사용법을 활용하시고 부득이하여 단기간 경구 투여할 때에도 위장 장애가 없는 항생제를 골라 투여하여야 합니다.

가 장 중요한 것은 혈중농도입니다. 어떠한 투여경로의 경우에도 일으킨 병을 병원균과 싸우는 항생물질 군사를 가축체내에 투여할때는 세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수량 이상의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하는데 투여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약의 효력이 둔화되므로 투여하는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감 짝날 경험담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에 대하여 상당히 원로급에 계신 분인데 돼지 50두가 갑자기 설사를 하게 되어 이약 저약 사용하다가 안되어 어떤 약이 좋은지 추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서 “지(G)”라는 약을 추천한 후 틀림없이 효과를 보았을 줄로 알고 여러날 지난후 우연히 만나 확인하였더니, 추천하였던 약으로 효과가 없어서 다른 약을 썼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사용하셨느냐고 하였더니 한번씩만 주사하고 결과를 보았다고 하는 것

을 듣고 깜짝놀랐습니다.

아무리 좋은 원자폭탄 같은 항생제라도 단번에 듣는 약은 절대 있을수 없습니다. 항생제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첫날에는 2 회, 다음날부터는 1 회씩 적어도 3 일간은 처치하여야 합니다.

물 에 타서 투여하는 경우에는 깨끗한 용기에 1 일 2 ~3 번 정도 투여해야 제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항생물질과 물의 온도 및 pH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페니실린·오레오마이신의 효과가 아주 좋지만 수용액상태에서는 빨리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클로람페니콜을 물에 타서 쓸때에는 잘 녹지않으므로 될수록 사료에 섞어 쓰는 편이 좋습니다. 타이로신은 pH가 4 이하일때 전혀 효력이 없는 데스마이코신이 형성되므로 산성쪽인 약제와 같이 수용액으로 투여하면 안되겠습니다.

항 생물질이 세균성질병에만 듣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질병에 걸렸을때 감수성시험 등 과학적인 근거없이 무조건하고약을 쓰기만 하면 질병이 나올줄로 착각하고 계신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파리를 잡을때 몽둥이를 쓸수 없는 것처럼 항생제는 저마다 각각 특징과 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적재적소”라는 말을 빌릴수 있겠습니다. 미처 감수성시험을 할 수도 없고 급한 경우에는 우선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항생제 치료시에 실패하는 경우를 한 예를 더 들겠습니다.

유방염 치료시에 소독하지않으면 젖꼭지를 주입시에 꼭지에 묻어있던 곰팡이가 같이 밀려들어가서 만성적이고 난치성인 유방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텍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과 같은 부신피질호르몬계통 약제가 섞인 항생제를 유두에 투약하여 유산한 경우도 여러건 있었습니다.

근 본적으로 약을 사용할 때 가축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겸허한 자세로 하여야 합니다. 성실성이 없는 투약 자세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다음호에 계속)